

냉전시대의 美정치인 총체적 조감

캘러헌의 폴 니츠 연구서 「위험한 가능성들」



여섯 대통령 아래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물렀던 폴 니츠.

2차대전 이후 최근까지 40여년간, 그것도 여섯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물러 온 귀재(?)가 있다. 우리의 곤고한 현대정치사의 안목에서야 대뜸 '바람개비'니, '카멜레온'이니 손가락질을 받기가 십상인 이 인물이 바로 폴 니츠(Paul Nitze)이다. 그간 현대 한국정치에 미친 미국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市井의 사람들도 국무성이나 국방성의 '낯신' 이름들 가운데 귀에 익은 몇몇은 있게 마련인 것이 저간의 사정인데, 이에 비해 보면 폴 니츠라는 이름은 그의 장구한 영향력에 비하면 의외의 것인 셈이다.

현재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매거진」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캘러헌(David Callahan)이 최근 상재한 「위험한 가능성들」(Dangerous Capabilities, Paul Nitze and the Cold War; 517pp. New York: An Edward Burlingame Book / Harper Collins Publishers, \$24.95)은 냉전시대를 열었고 또한 아직도 냉전적

논리로써 세계를 조망하는 한 '운 좋고 뛰어난' 인물을 그리고 있다.

작가 캘러헌은 서두에서부터 니츠의 경력은 40여년간의 국제분쟁기를 관통하는 것이므로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을 이해하는 것이 첩경이다"라고 단언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로부터 레이건까지 여섯 대통령 아래서 12곳의 정부요직을 걸친 그를 두고 전 국무장관 슈츠(George Shultz)는 "뛰어난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곳이 정부요직이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또 가도 항상 행정부에 남아있는 사람, 그가 폴 니츠이다"라고 비꼬는 것인지를 능력에 칭찬하는 것인지 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니츠는 戰後 미국 외교정책 수립자의 한 사람으로 하버드대학 출신이다. 대학시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다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는 그는 세심하고 신중한-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인물로 평해진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민주당원이었으면서도 민주·공화 양 정부를 막론하고 공직에 복무한 초당파적(bipartisan) 경력을 갖고 있는데, 순간순간 그는 이 이력 때문에 좌우 양편으로부터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기묘한 것은 현대史家들이 냉전시대 개막의 章典이라고까지 평가하는 「국가 안전보장회의 자료 68」을 편찬한 그가 이로 인해 우파들로부터 비방을 당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서도 또 한편 맥카시선풍이 몰아칠 때는 빨갱이로 지목받던 애치슨(Acheson)과 가깝다는 이유로 1953년과 1974년 국방성 요직임명을 비토당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행정부내의 견제세력으로 인해 소기의 요직을 갖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가령 케네디대통령은 그를 국방성 차관보로 임명키로 했지만 결국 부차관보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74년 전략 무기 제한협상단에서 킨저족의 반발로 단장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비근한 예이다.

작가에 의하면 니츠는 전형적인 '내부인물'(insider)이다. 그는 이 특성으로 인해 좋게는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부릴 수 있는 기술이나 또는 안건들을 성사시키는 방법들을 체득할 수 있었지만, 나쁘게는 그에 대한 내외의 비판에 가타부타 입을 열 수 없게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베트남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私적으로는 이러한 의사를 개진했지만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전에는 결코 공개적으로 이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私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껏 자기 의견을 개진하곤 했다. 그가 바깥에 있으면서 항상 우려했던 것은 미국의 정책이 소련에 대해 유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1977년 카터행정부 당시 野人이던 그가 대소 군사교섭자이던 지기 폴 완크(Paul Warnke)

를 애국심이 의심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그가 카터행정부로부터 밀려났던 이유와, 동시에 그가 생각한 애국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냉전시대를 걸쳐 니츠의 견해를 지탱한 두 관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소련의 의도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항상 전제해야 한다는 '체계적인 비관론'(Systematic Pessimism)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무기의 중요성과 핵의 균형에 있어 최소한은 미국이 소련에 비해 우월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가령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미국의 승리로 이끈 것은 재래식 무기의 우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가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하곤 했다.

캘러헌이 본서에서 유도하고 있는 논리에 대해 흠잡을 만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견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은 칭찬할 만하다. 부록에 비치되어 있는 53회의 인터뷰들은 니츠에 대한 비판자나 옹호론자들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또한 한가지 의도, 즉 냉전의 역사를 쓰겠다는 목적은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니츠의 후반기 경력에 대한 쓸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논술의 초점이 한 개인에게 집중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의 '검은 계획' 파헤친 「백지수표」

이란-콘트라사건을 감추기 위해 올리버 노스(Oliver North)와 포인덱스터(John Poindexter)사이에 가설되었던 정보체계는 '백지수표'(blank check: '무제한의 자유 행동권'을 의미)란 암호명을 갖고 있었다. 의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느라고 법석을 떨었지만 이에 접근할 법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레이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공개를 명백히 반대했던 만큼 '백지수표'라는 암호명은 참으로 걸맞은 이름이라고 할 만하다. 이 사건 말고도

미 연방정부가 수행해 온,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검은 계획'(black program)의 전모가 어디 한번이라도 적절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紙의 워싱턴 주재기자인 팀 와이너(Tim Weiner)는 이란-콘트라 정보체계의 암호명을 따서 그의 題名으로 삼은 「백지수표」(Blank Check, The Pentagon's Black Budget; 273P.P. New York: Warner Books, \$21.95)를 내놓았다.

이 속에서 저자는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이 통상적인 감사도 받지 않은 채, 의회의 통제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조차 없이 비밀리에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비밀 국방자금은 '선별활동'이나 '특별계획'이란 티없는 제목으로 위장되어 비밀전쟁(Secret wars)이나 국제스파이 활동을 도우는 자금으로, 또는 특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문의 예산이 정부의 여타 예산부문보다 훨씬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에도(1989년의 경우 이 부문의 총액은 36억달러에 달했다.) 이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단지 셋, 즉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정보부장 뿐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은 예산이 어떻게 비밀무기 개발이나 비밀전쟁에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무기들과 전쟁들이 정상적인 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그가 예시하는 쓸데 없는 비밀무기개발의 예는 B-2스텔스 폭격기와 밀스타(Milstar)로 명명된 인공위성 정보체계이다. 또한 명칭한 비밀전쟁의 경우로는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파테말라 그리고 콩고에서 수행된 공작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역사적 맥락에서 검은 계획들(black programs)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그가 첫번째 검은 계획으로 추산하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하탄 계획으로부터 C.I.A의 기원, 국가안전국 등의 기원을 추적한다.

저자 와이너는 검은 예산의 발생에 대한 묘사와 이들이 공개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남용에 대한 지적에서는 탁월한 기량을 보인다. 본서

「백지수표」는 이 이유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저자는 여러 곳에서 단순한 분석방법으로 이 선명한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오히려 그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검은 예산의 유용을 차별없이 다루고 있는 점인데, 즉 일단의 고위장교들이 갖은 핑계를 대고서 검은 예산을 私적으로 유용하여 착복하는 사소한(?) 것과 이란-콘트라 사건 같이 국가안보에 밀접한 중대한 예산유용을 同價로 다루으로써 그 중요도가 선명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검은 계획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미국정부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활동들이 지나치게 많고, 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레이건 행정부가 이러한 검은 계획에 너무 많은 재원을 쏟아 부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참된 해결책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것일 터이다.

한편 비밀무기의 개발이 헛된 것이었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감하지만, 또 한편 그 헛된 결과가 '검은 예산'의 본질적 결과물이 아니라, 냉전구조가 허물어지고 이에 따라 양 강대국이 군축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와이너는 레이건 행정부하의 검은 예산의 정체와 그 예산이 증대하는 이유를 깊숙히 취재해

온 一群의 기자들 속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이 방면의 기사로 해서 폴리처상을 획득한 베테랑기자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러한 경력에 바탕하여 지난 50여년간 미국 정부가 행해 온 비밀 정보활동들을 하나로 꿰어낸 본서는 거듭 칭찬해도 아깝지 않다. 다만 여러 각각의 사건들을 한 맥락속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벗어났던 몇몇의 오류들은 옥에 티가 되고 있다.

저널리스트가 본 80년대 한국의 빛과 그림자

한국에 관한 외국인들의 저술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東京주재 미국 특파원이 본 한국의 최근 정치·경제서가 출간되었다. 미카엘 샤피로(Michel Shapiro)의 「태양속의 그림자」(The Shadow in the Sun, A Korean Year of Love and Sorrow; 240pp, New York: The Atlantic Monthly Press, \$19.95)가 그것이다. 저자 샤피로는 이미 80년대 후반 「일본: 비탄에 빠진 땅」이란 일본관계 서적으로 선을 보인 적이 있다.

그는 80년대 후반 정치·경제적인 변혁의 소용돌이속에 빠져 있던 한국을 여러차례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본서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속에서 저자는 전체주의적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시켰던 추동력인 한국내의 경제적·정치적 세력들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

「점증하는 기대의 혁명」으로 명명된 1987년 봄부터 9개월 후의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기간은 저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던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88년 겨울부터 그 해 가을의 서울올림픽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보고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아울러 더욱 생생하다.

물론 출간 직전에 찍어진 후기속에서 저자는 서구인들 대부분이 가상하고 있는 가능성, 즉 "한국의 경제는 발전을 계속할 것이지만 정치는 전체주의 체제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찬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샤피로가 이 책속에서 보여주곤 했던 것, 즉 그동안 한국민의 운명이 얼마나 정치, 사회적 비상국면에 의해 결정되었던가 하는, 내밀한 한국인의 역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샤피로의 본 저작이 참된 기여를 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저자가 가장 탁월하게 그려내는 부분은 물론 최근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세부묘사이다. 각 분야의 삶에 대한 기록들은 결국 함께 어우러져, 심대한 변화속에 살아가는 80년대 말 한국인들

의 事實畫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7년 봄과 여름, 3000여건에 이르는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소요진압을 최루탄을 발사하고, 6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던 미국청년들이 이제 부유한 투자 은행가들이 되어 한국과 상담하고 있다. 또한, 1988년 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야당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개원되고, 한편 500여곳의 출판사가 문을 연다.

한국인들로서야 아직도 생생한 경험들이지만, 저자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과거 한국인의 운명이 정치적 비상국면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80년대 후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한국인에게 정치적 운명과 '경제적' 운명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는 그의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속에서 저자는 한국인들이 이들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견지하는 心困의 자세를 恨과 情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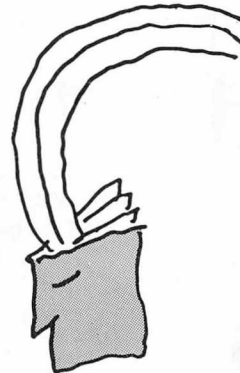
저자 샤피로는 오늘의 한국사회로 이끌었던 여러 원인들에 대해 참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교적 사고의 전통이라든지,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그리고 해방이후 분단의 고통과 한국동란의 참상들에 대한 지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을 규정짓는 사회적 추세나 한국인의 태도는 또 한편 어떤 특정한 아시아적, 또는 한국적 전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규모의 산업화의 소산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적 현상을 '한국적'현상으로 지켜 봄으로써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산업화)속의 한국을 지켜 보는 안목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통 가족관계의 붕괴, 이농현상과 도시화,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조직들, 이들은 보다 광역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들임에 분명하다.

KBS 제1라디오 방송수필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할때”

양상민 외

「미세한 물방울이 맑자를 앓고 흐리면 무지개가 되지 않는다. 「아침무지개가 말을 할때」의 이 수필집은 맑은 물방울이 모여 흰색깔을 7색의 무지개로 바꾸려는 뜻들이 모인 하늘이라 하겠다. 그것은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처나고 어지럽고 흐린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깨끗하고 꿈이 서리는 아름다운 말들이라 하겠습니까.」
— 서정범 교수 (한국수필주간) 머릿말중에서 —



「人生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물 앞에는... 어린 가슴엔 꿈과 낭만의 무지개로, 삶을 돌이키는 이들에겐 어린 그리움의 무지개가 되어 誠實히 삶의 진솔함을 노래한다. 달팽이·하루살이·바위·침과 등나무·술·흙·산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를 들려준다. 끝내 얼굴을 숨기기를 고집한 KBS 수필문학 문인들이 特別남도 아닌 우리들의 숨결같은 생활 곳곳의 진솔한 삶을 정성스레 모아 가난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영동한 진리의 아침 무지개로 피어 아름다운 삶의 색으로 남고자 한다.

● KBS 제1라디오 「시와 수필과 음악사이」에 매일 밤 11:30~11:50까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 신국판/194쪽/값 3,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림기획

275-5296 · 6295